

AS Season's Greetings

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,

AS는 올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.

A Year in Review for AS

2024년 AS는 남동아시아 현대미술의 서사를 공부하고 이를 재배치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. 전시 📒 스터디 🍾 일본 현장 연구 🌏 웹사이트 개설 💡 의 단계를 거쳐,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진 행한 기록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

"언어는 느슨하기 때문에 (성립) 가능하고, 우리는 시

STUDIES PROJECTS TEXT GOODS NOTICE ABOUT





Progression & timelines

 스터디 세션 3 완료
← Click! Phase 01: 2024. 08. 27. - 2024. 09. 13 Phase 02: 2024. 11. 19. - 2024. 12. 17

• Dot In 大東亞共榮圈(GEACPS)" to the present [●] ← Click! 일본 리서치 트립 2024. 10. 03. - 2024. 10. 08. Tokyo and Fukuoka, Japan 사진일록(寫眞日錄) 발행 <u>▲</u> ← Click!

* Tropical Bookshelves

'열대의 서가'는 AS의 스터디와 활동에서 참고한 출판물을 모은 공간이자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 다.

책은 연구자들을 잇고, 물리적 한계를 넘어 남동아시아 미술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 공합니다.

열대의 서가는 그들이 쌓아온 시각을 거쳐 무지의 틈을 메우며, 우리를 보다 깊은 정보로 견인합 니다.

관련 연구를 위한 지식이 담긴 글, 통찰의 출발점이 되는 책 역시 추천받습니다.



열대의 서가 - Dot in Japan

<u>Monograph</u>

- Krystie, NG et al. Inter-Asia Woodcut Mapping V: The Multiple Trajectories of Woodcut Movements in Postwar Asia. Hong Kong: Working group for Inter-Asia Woodcut Mapping Series, 2024.
- Masahiro, Ushiroshoji, Toshiko Rawanchaikul, eds. THE BIRTH OF MODERN ART IN SOUTHEAST ASIA: Artists and Movements. Fukuoka: Fukuoka Art Museum, 1997.
- 장원쉬안. 『엑스포츠 온 페이퍼: 글로벌 사우스에서 출판 실천을 추출하기』. 임경용 옮김. 서 울: 미디어버스, 2023.

Catalog

- Kumakura, Haruko, Tokuyama Hirokazu, Uchida Shinichi, eds. WORLD CLASSROOM: Contemporary Art through School Subjects,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Mori Art Museum. Tokyo: Mori Art Museum, 2023.
- Rawanchaikul, Navin. Place of Rebirth. Kitakyushu: Navin Production Co. Ltd., 2023.
- Kataoka, Mami, Yoneda Naoki, eds. SUNSHOWER: Contemporary Art from Southeast Asia 1980s to Now. Tokyo: Mori Art Museum, The Japan Foundation Asia Center, The National Art Center, Tokyo, Heibonsha Ltd., 2017.

Publication

• SGRA. "东南亚近代〈美术〉的诞生." SGRA 报告[Report], No.107 (June 2024).

Media Coverage

참여형 미술 전시를 기획하는 NAP의 책 『앙상블: 다층적으로 포개어 감싸기』 (2024)에 AS와의 인터뷰와 좌담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. © NAP(Nomad Art Project)



다가올 2025년에도 남동아시아 현대미술을 배우고 그 과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올해 이어왔던 지배적인 서사에 제기한 의문, 동시대 미술을 형성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포용하는 시 간에 보내주신 지지에 감사드립니다.

새로운 영감으로 가득한,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.

문혜인, 조현아 드림